

2026년 5월 27일

Hana FX Daily Letter

중동 긴장 풀려도, 고금리가 떠받칠 환율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및 달러 반등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502~1,512원

■ 미-이란 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시장 내 경계감도 유지되고 있음. 이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과 달러 강세에 달러/원 환율도 전일의 낙폭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예상. 한편, 뉴욕 증시에서는 종전 기대로 인한 위험 선호 분위기에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음. 이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된다면 환율의 상방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에 금일 환율은 1,500원대 중반에서 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26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12.9원 하락한 1,504.3원에 마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2.2원 내린 1,515.0원에 개장. 장중 수출업체 고점 매도물량 유입과 대통령의 환율 관련 메시지 등의 영향으로 낙폭을 확대, 1,500원대 중반에서 정교장을 마침.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미-이란 간 갈등 양상이 부각됨에 따라 1,507.2원으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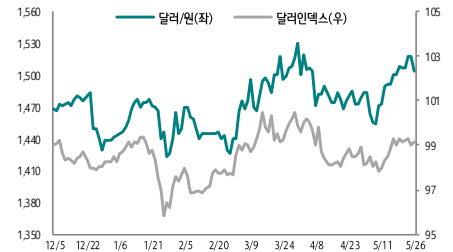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간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중동 내 국지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낙관론이 다소 후퇴함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99선으로 반등
- (유로-달러) 슈나벨 ECB 집행이사가 6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았으나, 중동 긴장 속 달러 반등하자 유로화는 약세를 보임
- (달러-엔) 다카이치 총리가 적자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반등하자 엔화는 약세 흐름을 나타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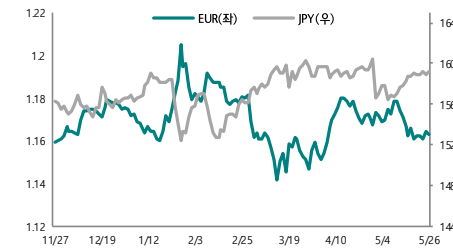
- 최근 미-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 속에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고금리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리 상승을 견인한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제 시장은 그 외의 구조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음. 향후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 유가가 안정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AI 생산성 향상, 연준의 긴축 가능성 등 실질금리 상승 요인들로 인해 명목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큼. 최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연준의 매파적 기조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이는 원화 환율의 상방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 하단 자체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515.0	1,504.3	1,507.2	1,506.3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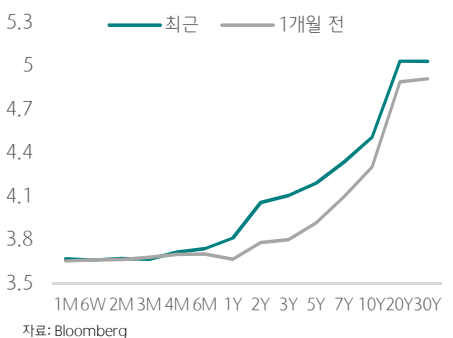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30	159.29	6.7855
전일대비	-0.0014	+0.38	+0.0013
재정환율	1,749.53	944.38	221.69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09:00	우에다 BOI 총재 연설		
10:30	호주 4월 CPI상승률(YoY)	4.4%	4.6%
17:00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 연설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